

매일 미사 전례 독서

2010년 9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신심 미사 평화의 모후 복되신 동정 마리아

제1독서 <왕권은 강대하고,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9,1-3.5-6

¹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²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³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멘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⁵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⁶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 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5(84), 9ㄱ-ㄴ과 10, 11-12, 13-14(◎ 9ㄴ 참조)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 알렐루야.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26-38

그때에 ²⁶ 하느님께서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²⁷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²⁸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²⁹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³⁰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³¹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³²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³³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³⁴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³⁵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³⁶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³⁷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³⁸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일
연중 제22주간 수요일

제1독서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받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3,1-9

¹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²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³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⁴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속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⁵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 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⁶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⁷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⁸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여,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샹을 받을 뿐입니다.

⁹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받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3(32), 12-13, 14-15, 20-21(◎ 12ㄴ)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행복하여라, 하느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을 살펴보신다. ◎

○ 당신 머무시는 곳에서, 땅에 사는 모든 이를 지켜보신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빚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속속들이 헤아리신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 기뻐하고,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가 신뢰하네.

◎ 행복하여라, 하느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복음 환호송

루카 4,18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나는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 38-44

³⁸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³⁹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⁴⁰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 주셨다.

⁴¹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⁴²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판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⁴³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⁴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일 연중 제22주간 목요일

제1독서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3,18-23

형제 여러분, ¹⁸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¹⁹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²⁰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²¹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²²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²³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4(23),1-2,3-4나,5-6(◎ 1ㄱ)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복음 환호송

마태 4,1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 알렐루야.

복 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11

¹ 예수님께서 겔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²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³ 예수님께서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⁵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⁶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⁷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⁸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⁹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¹⁰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¹¹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3일 금요일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

제1독서 <주님께서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4,1-5

형제 여러분, ¹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²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³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서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⁴ 나는 잘못된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⁵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저마다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7(36).3-4.5-6.27-28ㄴ.39-40(◎ 39ㄱ)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을 믿으며 좋은 일 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네 마음이 청하는 대로 그분이 주시리라. ◎
- 주님께 네 길을 맡기고 신뢰하여라. 그분이 몸소 해 주시리라. 빛처럼 네 정의를 빛내시고, 대낮처럼 네 공정을 밝히시리라. ◎
-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너는 길이 살리라. 주님은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 버리지 않으신다. ◎
-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분은 어려울 때 피신처가 되신다. 의인들이 주님께 몸을 숨겼으니, 그분은 그들을 도와 구하시고, 악인에게서 빼내 구원하시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8,12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그들도 신랑을 빼앗기면 단식할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33-39

그때에 ³³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³⁴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³⁵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³⁶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 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 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³⁷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³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³⁹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4일 연중 제22주간 토요일

제1독서 〈우리는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4,6ㄴ-15

⁶ 형제 여러분, 나는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배워, 저마다 한쪽은 앞보고 다른 쪽은 편들면서 우쭐거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⁷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보아 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인 양 자랑합니까?

⁸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 두고 이미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임금이 될 수 있게 말입니다.

⁹ 내가 생각하기에,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¹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¹¹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¹² 우리 손으로 애써 일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 축복해 주고, 박해를 하면 견디어 내고, ¹³ 중상을 하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¹⁴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타이르려는 것입니다. ¹⁵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 주는 인도자가 수없이 많다 하여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5(144), 17-18, 19-20, 21(◎ 18ㄱ)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의 소망을 채우시고, 그 애원을 들으시어 구해 주시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지키시고, 죄인들은 모두 없애버리시네. ◎

○ 내 입은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모든 육신은 그 거룩하신 이름 찬미하리라, 영영 세세에. ◎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 음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 1-5

¹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² 바리사이 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³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⁴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⁵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5일
연중 제23주일

제1독서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9, 13-18

¹³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¹⁴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¹⁵ 씌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¹⁶ 저희는 세상 것도 거의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는 것조차 거의 찾아내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밝혀낸 자 어디 있겠습니까?

¹⁷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¹⁸ 그러나 그렇게 해 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의 길이 올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0(89), 3-4, 5-6, 12-13, 14와 17(◎ 1)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이제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으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필레몬서 말씀입니다.

9ㄴ-10.12-17

사랑하는 그대여, ⁹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 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¹⁰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¹²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¹³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¹⁴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¹⁵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¹⁶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¹⁷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시편 119(118).13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5-33

그때에 ²⁵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²⁶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²⁷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²⁸ 너희 가운데 누가 탐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²⁹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³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³¹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³²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³³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6일 연중 제23주간 월요일

제1독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5,1-8

형제 여러분, ¹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²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슬퍼하며,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³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짓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⁵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⁶ 여러분의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⁷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⁸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5-6ㄴ.6ㄷ-7.12(◎ 9ㄴ)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끄소서.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당신은 죄악을 좋아하는 하느님이 아니시기에, 악인은 당신 앞에 머물지 못하고, 거만한 자들은 당신 눈앞에 나설지 못하나이다. ◎
- 당신은 나쁜 짓 하는 자 모두 미워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자를 없애시나이다. 피에 주린 자와 사기 치는 자를 주님은 역겨워하시나이다. ◎
-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 당신이 감싸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 음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6-11

⁶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⁷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⁸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¹⁰ 그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뺄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¹¹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7일 연중 제23주간 화요일

제1독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6,1-11

형제 여러분,¹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이교도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²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³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하물며 일상의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⁴ 그런데 이런 일상의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엽신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말입니까?

⁵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 줄 만큼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⁶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⁷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 주지 않습니까?⁸ 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

⁹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¹⁰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¹¹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9,1-2.3-4.5-6ㄱ과 9ㄴ(◎ 4ㄱ)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

○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 손북 치고 비파 타며 찬미 노래 드려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 ◎

○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 뛰며, 그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그들은 목청껏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어라. ◎

복음 환호송

요한 15,1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서는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사도라고도 부르신 열둘을 뽑으셨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2-19

¹²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¹³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둘을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¹⁴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¹⁵ 마태오, 토마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¹⁶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¹⁷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¹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¹⁹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8일 수요일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제1독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 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5,1-4ㄱ〈또는 로마 8,28-3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¹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헬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²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³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⁴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3(12).6ㄴ.6ㄷ(◎ 이사 61,10ㄱ)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저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이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

○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 님, 복되시나이다. 정의의 태양,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을 낳으셨으니, 온갖 찬미를 마땅히 받으시리이다.

◎ 알렐루야.

복 음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16.18-23 <또는 1,18-23>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¹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²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고, 이사악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³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⁴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⁵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⁶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⁷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⁸ 아삽은 여호사팻을 낳고, 여호사팻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⁹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¹⁰ 히즈키야는 므나쎄를 낳고, 므나쎄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¹¹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¹²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즈루빠벨을 낳았다. ¹³ 즈루빠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야קים을 낳았으며, 엘야קים은 아조르를 낳았다. ¹⁴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קים을 낳았으며, 아קים은 엘리웃을 낳았다. ¹⁵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¹⁶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¹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¹⁹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²⁰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²¹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²²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²³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9일 연중 제23주간 목요일

제1독서 〈형제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8,1ㄷ-7.11-13

형제 여러분, ¹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²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³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⁴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란 없다.”는 것과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⁵ 하늘에도 땅에도 이른바 신들이 있다 하지만 — 과연 신도 많고, 주님도 많습시다만 — ⁶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시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⁷ 그렇지만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¹¹ 그래서 약한 그 사람은 그대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¹²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¹³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짓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39(138), 1-3. 13-14ㄴ. 23-24(◎ 24ㄴ)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앎으나 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 알아차리시나이다.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헤아리시니, 당신은 저의 길 모두 아시나이다. ◎

○ 당신은 제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어미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나이다.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 작품들은 놀랍기만 하옵니다. ◎

○ 하느님, 저를 살살이 보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소서. 저를 꿰뚫어 보시고 제 생각을 알아주소서. 저의 길이 굽었는지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 ◎

복음 환호송

1요한 4, 12ㄴ-ㄷ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 27-3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⁷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²⁸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²⁹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겹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³⁰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³¹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³²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³³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 주는 이들에게만 잘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³⁴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 준다.

³⁵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³⁶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³⁷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³⁸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0일 연중 제23주간 금요일

제1독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9,16-19.22ㄴ-27

형제 여러분, ¹⁶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¹⁷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삿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¹⁸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삿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¹⁹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²²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²³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²⁴ 경기장에서 달리기하는 이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²⁵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²⁶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권투를 하지 않습니다. ²⁷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4(83), 3.4.5-6.12(◎ 2)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얼마나 사랑스럽나이까!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의 프락을 그리워하며, 이 영혼 여위어 가나이다. 살아 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환성을 올리나이다. ◎

○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

○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행복하옵니다,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 떠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

○ 주 하느님은 태양이요 방패이시니, 주님은 은총과 영광을 주시나이다. 흠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아끼지 않으시나이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7,17ㄴㄷ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39-42

그때에 ³⁹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렁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⁴⁰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⁴¹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⁴²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1일

연중 제23주간 토요일

제1독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0,14-22

¹⁴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¹⁵ 나는 여러분을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¹⁶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¹⁷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¹⁸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희생 제물을 먹는 이들은 모두 제단에 동참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¹⁹ 그러니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무엇이랄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상이 무엇이랄도 된다는 말입니까?²⁰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하느님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귀들과 상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²¹ 여러분이 주님의 잔도 마시고 마귀들의 잔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마귀들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²²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6(115), 12-13, 17-18(◎ 17ㄱ 참조)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나이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당신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14, 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 43-49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⁴³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⁴⁴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⁴⁵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⁴⁶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⁴⁷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⁴⁸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⁴⁹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2일 연중 제24주일

제1독서 〈주님께서서는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32,7-11.13-14

그 무렵 ⁷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⁸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다.’ 하고 말한다.”

⁹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뻗뻗한 백성이다. ¹⁰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 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¹¹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¹³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¹⁴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1(50),3-4.12-13.17과 19(◎ 루카 15,18)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

제2독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말씀입니다. 1,12-17

사랑하는 그대여, ¹² 나를 굳세게 해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¹³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¹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흘렀습니다.

¹⁵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¹⁶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당신의 한없는 인내로 대해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¹⁷ 영원한 임금이시며, 불사불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한 분뿐이신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2코린 5,19

◎ 알렐루야.

○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알렐루야.

복 음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1-32〈또는 15,1-10〉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부분을 생략한다.

그때에 ¹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²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³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⁵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⁶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⁷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⁸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열 닢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닢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⁹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¹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¹¹ 예수님께서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¹²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¹³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¹⁴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¹⁵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¹⁶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¹⁷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¹⁸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¹⁹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²⁰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²¹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²²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²³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²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²⁵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²⁶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²⁷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²⁸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²⁹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³⁰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³¹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³²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3일 월요일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학자 기념일

제1독서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있다면,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1,17-26.33

형제 여러분, ¹⁷ 내가 지시하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¹⁸ 우선,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¹⁹ 하기가 여러분 가운데에 분파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²⁰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²¹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²²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²³ 사실 나는 주님께에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²⁴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²⁵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²⁶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³³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40(39).7-8ㄴ.8ㄷ-9.10.17(◎ 1코린 11.26ㄴ)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여라.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 주님을 찾는 이는 모두 주님 안에서 기뻐 즐거워하리이다. 주님 구원을 열망하는 이는 언제나 외치게 하소서. “주님은 위대하시다.” ◎

복음 환호송

요한 3,16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 음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1-10

¹ 예수님께서서는 백성에게 들려주시던 말씀들을 모두 마치신 다음,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다.

² 마침 어떤 백인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³ 이 백인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다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 주십사고 청하였다.

⁴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며 간곡히 청하였다. “그는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⁵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⁶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런데 백인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 백인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었다.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⁷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 주십시오.

⁸ 사실 저는 상관 밑에 매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⁹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백인대장에게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¹⁰ 심부름 왔던 이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4일 화요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제1독서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21,4ㄴ-9〈또는 필리 2,6-11〉

그 무렵 ⁴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⁵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⁶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 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⁷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⁸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⁹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78(77).1-2.34-35.36-37.38(◎ 7ㄴ 참조)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을 말하리라. ◎

- 죽이시던 그때서야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다시 돌아와, 하느님이 그들의 바위이심을 기억하였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
- 그러나 그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네. 그분께 마음을 굳건히 두지 않고, 그분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네. ◎
- 그래도 그분은 자비로우시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네. 당신 분노를 거둬 돌이키시고, 결코 진노를 터뜨리지 않으셨네.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 요한이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3,13-17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¹³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¹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¹⁵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¹⁶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¹⁷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5일 수요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제1독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5,7-9

⁷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⁸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⁹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1(30), 2-3ㄴ, 3ㄷ-4, 5-6, 15-16, 20(◎ 17ㄴ 참조)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게 당신 귀를 기울이시고, 어서 저를 구하소서. ◎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 숨겨진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시옵니다.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

○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

○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주님은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선을 베푸시나이다. ◎

부속가 〈다음 부속가는 자유로이 하되, 모두 하든지 또는 11번부터 짧게 할 수 있다.〉

1. 아들이 예수 높이달린 십자곁에 성모서서 비통하게 우시네.
2. 젊고 설운 슬픔고통 성모성심 칼에 찔려 참혹하게 뚫렸네.
3. 독생성자 수난하니 여인중에 복된성모 애간장이 다녹네.
4. 아들수난 보는성모 맘저미는 아픔속에 하염없이 우시네.
5. 예수모친 이런고통 지켜보는 우리죄인 누가울지 않으리?
6. 십자가의 아들보며 함께받는 성모고통 누가슬퍼 않으리?
7. 우리죄로 채찍모욕 당하시는 아들이 예수 성모슬퍼 보시네.
8. 기진하여 버려진채 죽어가는 아들보고 애처로이 우시네.

9. 사랑의샘 동정성모 저희들도 슬퍼하며 함께울게 하소서.
10. 그리스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제마음에 불이타게 하소서.
11.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맘속에 주님상처 깊이새겨 주소서.
12. 저를위해 상처입고 수난하신 주님고통 제게나눠 주소서.
13. 사는동안 십자가고통 성모님과 아파하며 같이울게 하소서.
14. 십자곁에 저로서서 성모님과 한맘으로 슬피울게 하소서.
15. 동정중의 동정이신 성모님의 크신슬픔 저도울게 하소서.
16. 주님상처 깊이새겨 그리스도 수난죽음 지고가게 하소서.
17. 저희들도 아들상처 십자가위 흘린피로 흠뻑젖게 하소서.
18. 동정성모 심판날에 영원형벌 불속에서 저를지켜 주소서.
19. 그리스도 수난공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보호하여 주소서.
20. 이몸죽어 제영혼이 천국영광 주 예수님 만나뵙게 하소서. 아멘.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동정 성모 마리아 님, 복되시나이다.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죽음 없이 순교의 월계관을 받으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아들 수난 보는 성모, 맘 저미는 아픔 속에 하염없이 우시네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부속가).〉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25-27〈또는 루카 2,33-35〉

²⁵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²⁶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²⁷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6일 목요일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

제1독서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1-11

¹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²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³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⁴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⁵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⁶ 그다음에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⁷ 그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⁸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⁹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¹⁰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¹¹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8(117),1-2.16-17.28(◎ 1ㄱ)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복음 환호송

마태 11,28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36-50

그때에 ³⁶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³⁷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³⁸ 예수님 뒤흘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³⁹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⁴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⁴¹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 ⁴²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⁴³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⁴⁴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⁴⁵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⁴⁶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 주었다.

⁴⁷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⁴⁸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⁴⁹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 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⁵⁰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7일 연중 제24주간 금요일

제1독서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12-20

형제 여러분, ¹²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¹³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¹⁴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¹⁵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¹⁶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¹⁷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¹⁸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¹⁹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²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7(16).1.6-7.8과 15(◎ 15ㄴ)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 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

○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놀라우신 당신 자애를 베푸소서. 당신 오른쪽으로 피신하는 이들을 적에게서 구해 주시는 분. ◎

○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여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3

그때에 ¹ 예수님께서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²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³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안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8일 연중 제24주간 토요일

제1독서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35-37.42-49

형제 여러분,³⁵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³⁶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³⁷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밀이든 다른 종류든 씨앗일 따름입니다.

⁴²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⁴³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⁴⁴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⁴⁵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⁴⁶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다음입니다.

⁴⁷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⁴⁸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⁴⁹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6(55), 10, 11-12, 13-14(◎ 14ㄷ 참조)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하느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제가 부르짖는 그날, 그때 원수들은 뒤로 물러가리이다. 하느님이 제 편이심을 저는 아나이다. ◎

○ 하느님 안에서 나는 말씀을 찬양하네. 주님 안에서 나는 말씀을 찬양하네. 하느님께 의지하여 두려움 없으니,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

○ 하느님, 제가 당신께 드린 서원, 감사의 제사로 채우리이다. 제 목숨 죽음에서 건져 주시어, 제 발걸음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느님 앞에서 걸어가라,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라 하셨나이다. ◎

복음 환호송

루카 8, 15 참조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 4-15

그때에 ⁴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⁵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밭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 버리기도 하였다.

⁶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 버렸다. ⁷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⁸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⁹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¹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¹¹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¹²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 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¹³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¹⁴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¹⁵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19일 주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9월 20일 대축일 미사를 주일로 옮겨 지내는 곳에서는 47면 참조〉

9월 19일
연중 제25주일

〈9월 20일에 대축일 미사를 드릴 곳에서는 연중 주일 미사를 드린다.〉

제1독서 〈힘없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들이는 자들에 대한 경고〉

▮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8,4-7

⁴ 빈곤한 이를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이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⁵ 너희는 말한다. “언제면 초하룻날이 지나서 곡식을 내다 팔지?

언제면 안식일이 지나서 밭을 내놓지? 에파는 작게, 세겔은 크게 하고, 가짜 저울로 속이자. ⁶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사들이고, 빈곤한 자를 싼 한 켈레 값으로 사들이자. 지스리기 밭도 내다 팔자.”

⁷ 주님께서 야곱의 자만을 두고 맹세하셨다. “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3(112),1-2,4-6,7-8(◎ 1ㄱ과 7ㄴ 참조)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불쌍한 이를 들어 올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

○ 주님은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시네.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 같으랴? 드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 ◎

○ 억눌린 이를 흙먼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불쌍한 이를 갯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 귀족들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그들을 한자리에 앉히시네. ◎

제2독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느님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말씀입니다. 2,1-8

사랑하는 그대여, ¹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²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³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입니다. ⁴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⁵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⁶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때에 드러난 증거입니다. ⁷ 나는 이 증거의 선포자와 사도로,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⁸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을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 없이, 어디에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2코린 8,9 참조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네.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졌네.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13 <또는 16,10-13>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그때에 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²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³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⁴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⁵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⁶ 그가 ‘기름 백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쉼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⁷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백 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⁸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빚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⁹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¹⁰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¹¹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¹²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¹³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0일 월요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9월 19일 주일로 경축 이동을 하지 않은 곳에서는 대축일 미사를 드린다.〉

제1독서 〈하느님께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3,1-9

¹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²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³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⁴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⁵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갖은 이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⁶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⁷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⁸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⁹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26(125), 1-2ㄴ, 2ㄷ-3, 4-5, 6(◎ 5)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집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 31ㄴ-39

형제 여러분, ³¹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³²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³³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³⁴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³⁵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³⁶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³⁷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³⁸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³⁹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1베드 4,14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3-26

그때에 ²³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²⁴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²⁵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²⁶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0일 연중 제25주간 월요일

〈9월 19일 주일로 경축 이동을 한 곳에서는 평일 미사를 드린다.〉

제1독서 〈주님께서서는 비뚤어진 자를 역겨워하신다.〉

▮ 잠언의 말씀입니다. 3, 27-34

내 아들이, ²⁷ 네가 할 수만 있다면, 도와야 할 이에게 선행을 거절하지 마라. ²⁸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네 이웃에게 “갏다가 다시 오게, 내일 줄 테니.” 하지 마라.

²⁹ 이웃이 네 곁에서 안심하고 사는데, 그에게 해가 되는 악을 지어내지 마라. ³⁰ 너에게 악을 끼치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하고도 공연히 다투지 마라. ³¹ 포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길은 어떤 것이든 선택하지 마라.

³² 주님께서서는 비뚤어진 자를 역겨워하시고, 올곧은 이들을 가까이 하신다. ³³ 주님께서서는 악인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고, 의인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리신다.

³⁴ 그분께서는 빈정대는 자들에게 빈정대시지만, 가련한 이들에게는 호의를 베푸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5(14).2-3ㄱ.3ㄴ-4ㄴ.5(◎ 1ㄴ 참조)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 의로운 이는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지내리이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많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복음 환호송

마태 5,16

◎ 알렐루야.

-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등불은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6-18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¹⁶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¹⁷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¹⁸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1일 화요일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제1독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4,1-7.11-13

형제 여러분, ¹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²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³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⁵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⁶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⁷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¹¹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¹²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¹³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9(18).2-3.4-5ㄴ(◎ 5ㄱ)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 나가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

○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 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 나가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찬미하나이다, 주 하느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모임이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9-13

그때에 ⁹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¹⁰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¹¹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¹²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¹³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2일 수요일 한가위

제1독서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리라.>

□□ 요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2, 22-24, 26 가나니

²²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의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내리라.

²³ 시온의 자손들아,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 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 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 준다. ²⁴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학마다 햇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흐르리라.

²⁶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67(66), 2와 4ㄱ. 5ㄷ과 6. 7-8(◎ 7)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제2독서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리라.〉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4,13-16

¹³ 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 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¹⁴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¹⁵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¹⁶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시편 126(125),6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알렐루야.

복 음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15-21

그때에 예수님께서 ¹⁵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¹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¹⁷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¹⁸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공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¹⁹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²⁰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²¹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3일 목요일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

제1독서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 코헬렛의 말씀입니다.

1,2-11

²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³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

⁵ 태양은 뜨고 지지만, 떠올랐던 그곳으로 서둘러 간다. ⁶ 남쪽으로 불다 북쪽으로 도는 바람은, 돌고 돌며 가지만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⁷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흘러드는 그곳으로 계속 흘러든다.

⁸ 온갖 말로 애써 말하지만,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한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⁹ 있던 것은 다시 있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¹⁰ “이걸 보아라, 새로운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이전, 옛 시대에 이미 있던 것이다.

¹¹ 아무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듯, 장차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 그 일도 기억하지 않으리니, 그 후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0(89),3-4,5-6,12-13,14와 17(◎ 1)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쏘아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 음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7-9

그때에 ⁷ 헤로데 영주는 이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⁸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⁹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4일
연중 제25주간 금요일

제1독서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 코헬렛의 말씀입니다.

3,1-11

¹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²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³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떨 때가 있다. ⁵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꺾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⁶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 버릴 때가 있다. ⁷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⁸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⁹ 그러니 일하는 사람에게 그 애쓴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¹⁰ 나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보았다.

¹¹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 의식도 심어 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4(143), 1ㄱ과 2ㄱㄴ, 3-4(◎ 1ㄱ)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그분은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성채,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이시네. ◎

○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예 이토록 보살피시나이까? 인간이 무엇이기예 이토록 헤아리시나이까? 사람이란 한낱 숨결 같은 것, 그 세월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사옵니다. ◎

복음 환호송

마르 10,45

◎ 알렐루야.

○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 알렐루야.

복 음 <당신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 18-22

¹⁸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¹⁹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²⁰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²¹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²² 예수님께서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5일 연중 제25주간 토요일

제1독서 <먼지가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이 하느님께로 되돌아가기 전에,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 코헬렛의 말씀입니다. 11, 9-12, 8

⁹ 젊은이야, 네 젊은 시절에 즐기고, 젊음의 날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네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부르심을 알아라. ¹⁰ 네 마음에서 근심을 떨쳐 버리고, 네 몸에서 고통을 흘려 버려라. 젊음도 청춘도 허무일 뿐이다.

^{12,1}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불행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런 시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네가 말할 때가 오기 전에.

²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 온 뒤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³ 그때 집을 지키는 자들은 흐느적거리고, 힘센 사내들은 등이 굽는다. 맷돌 가는 여종들은 수가 줄어 손을 놓고, 창문으로 내다보던 여인들은 생기를 잃는다. ⁴ 길로 난 맛미달이문은 닫히고, 맷돌 소리는 줄어든다. 새들이 지저귀는 시간에 일어나지만, 노랫소리는 모두 희미해진다.

⁵ 오르막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도 무서움이 앞선다. 편도나무는 꽃이 한창이고, 메뚜기는 살이 오르며, 참양각초는 싹을 터뜨리는데, 인간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만 하고, 거리에는 조객들이 돌아다닌다.

⁶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깨어지며, 샘에서 물동이가 부서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깨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⁷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⁸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0(89),3-4.5-6.12-13.14와 17(◎ 1)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복음 환호송

2티모 1,10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복 음 〈사람의 아들은 넘겨질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 43^ㄴ-45

그때에 ⁴³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⁴⁴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⁴⁵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6일 연중 제26주일

제1독서 <이제 홍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6,1ㄱ,4-7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¹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⁴ 그들은 상아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 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⁵ 수금 소리에 따라 되짚은 노래를 불러 대고, 다윗이나 된 듯이 악기들을 만들어 낸다. ⁶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⁷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홍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6(145),6ㄷ-7.8-9ㄱ.9ㄴ-10(◎ 1)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계명을 지키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말씀입니다.

6,11ㄱ-16

¹¹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¹²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¹³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¹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¹⁵ 제때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한 분뿐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주님들의 주님이신 분, ¹⁶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뵈는 일이 없고, 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예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2코린 8,9 참조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네.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졌네.

◎ 알렐루야.

복 음 <너는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를 나쁜 것들을 받았다.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9-31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¹⁹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²⁰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²¹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핏곤 하였다.

²²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²³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²⁴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²⁵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²⁶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²⁷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²⁸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²⁹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³⁰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³¹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7일 월요일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

제1독서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읍기의 말씀입니다. 1,6-22

⁶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 와 주님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다.

⁷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야?”

사탄이 주님께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⁸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읍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 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⁹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읍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¹⁰ 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율타리 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 나지 않습니까? ¹¹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 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¹²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를 네 손에 넘긴다. 다만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¹³ 하루는 욥의 아들딸들이 만형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다. ¹⁴ 그런데 심부름꾼 하나가 욥에게 와서 아뢰었다. “소들은 밭을 갈고, 암나귀들은 그 부근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¹⁵ 그런데 스바인들이 들이닥쳐 그것들을 약탈하고, 머슴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¹⁶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이가 와서 아뢰었다. “하느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 떼와 머슴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¹⁷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이가 와서 아뢰었다. “칼데아인들이 세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약탈하고, 머슴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¹⁸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이가 와서 아뢰었다. “나리의 아드님들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¹⁹ 그런데 사막 건너편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그 집 네 모서리를 치자, 자제분들 위로 집이 무너져 내려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²⁰ 그러자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²¹ 말하였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²²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7(16), 1.2-3.6-7(◎ 6ㄷ)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제게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 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

○ 당신 앞에서 저에게 승소 판결 내리소서. 당신 눈으로 올바름을 보아 주소서. 제 마음 떠보시고 밤중에도 깨 보시며, 저를 달구셔도 부정을 찾지 못하시리이다. ◎

○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놀라우신 당신 자애를 베푸소서. 당신 오른쪽으로 피신하는 이들을 적에게서 구해 주시는 분. ◎

복음 환호송

마르 10,45

◎ 알렐루야.

○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 알렐루야.

복 음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46-50

그때에 ⁴⁶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⁴⁷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⁴⁸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⁴⁹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⁵⁰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8일
연중 제26주간 화요일

제1독서 〈어찌하여 그분께서는 고생하는 이에게 빛을 주시는가?〉

□□ 읍기의 말씀입니다.

3, 1-3, 11-17, 20-23

¹ 읍이 입을 열어 제 생일을 저주하였다. ² 읍이 말하기 시작하였다. ³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사내아이를 배었네!’ 하고 말하던 밤! ¹¹ 어찌하여 내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않았던가? ¹² 어째서 무릎은 나를 받아 냈던가? 젖은 왜 있어서 내가 빨았던가?

¹³ 나 지금 누워 쉬고 있을 터인데. 잠들어 안식을 누리고 있을 터인데. ¹⁴ 임금들과 나라의 고관들, 폐허를 제집으로 지은 자들과 함께 있을 터인데. ¹⁵ 또 금을 소유한 제후들, 제집을 은으로 가득 채운 자들과 함께 있을 터인데. ¹⁶ 파묻힌 유산아처럼,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처럼, 나 지금 있지 않을 터인데. ¹⁷ 그곳은 악인들이 소란을 멈추는 곳. 힘 다한 이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 ²⁰ 어찌하여 그분께서는 고생하는 이에게 빛을 주시고, 영혼이 쓰라린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²¹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건만, 숨겨진 보물보다 더 찾아 헤매건만 오지 않는구나. ²² 그들이 무덤을 얻으면 환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련만. ²³ 어찌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내에게, 하느님께서 사방을 에워싸 버리시고는 생명을 주시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8(87), 2-3, 4-5, 6, 7-8(◎ 3ㄱ)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 제 구원의 하느님, 낮에도 당신께 부르짖고, 밤에도 당신 앞에서 외치나이다.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

○ 제 영혼은 불행으로 가득 차고, 제 목숨은 저승에 다다랐나이다. 저는 구렁으로 떨어지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기운이 다한 사람처럼 되었나이다. ◎

- 저는 죽은 이들 가운데 버려졌나이다. 마치 살해되어 무덤에 묻힌 자 같습니다. 당신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니, 당신 손길에서 떨어진 저들처럼 되었나이다. ◎
- 당신이 저를 깊은 구렁 속에, 어둡고 깊숙한 곳에 처넣으셨나이다. 당신의 분노가 저를 짓누르고, 당신의 성난 파도가 저를 덮치나이다. ◎

복음 환호송

마르 10,45

- ◎ 알렐루야.
-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51-56

⁵¹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⁵²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⁵³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⁵⁴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⁵⁵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⁵⁶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29일 수요일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제1독서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백만이었다.〉

□□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7,9-10.13-14〈또는 묵시 12,7-12〉

⁹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좌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¹⁰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 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백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¹³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¹⁴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38(137), 1과 2ㄴ. 2ㄱㄴ과 3. 4-5(◎ 1ㄴ)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복음 환호송

시편 103(102), 21

◎ 알렐루야.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 뜻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아.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47-51

그때에 ⁴⁷ 예수님께서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⁴⁸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⁴⁹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⁵⁰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⁵¹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30일 목요일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기념일

제1독서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 계심을.〉

□□ 읍기의 말씀입니다.

19, 21-27

읍이 말하였다. ²¹ “여보게, 나의 벗들이여, 날 붙잡히 여기게나, 붙잡히 여기게나. 하느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네. ²² 자네들은 어찌하여 하느님처럼 나를 몰아붙이는가? 내 살덩이만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단 말인가?

²³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 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²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²⁵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 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²⁶ 내 살갓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²⁷ 내가 기어이 뵈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속에서 내 간장이 녹아내리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7(26), 7-8ㄴ. 8ㄷ과 9ㄱㄴㄷㄹ. 13-14(◎ 13)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

○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복음 환호송

마르 1,15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알렐루야.

복 음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12

그때에 ¹ 주님께서서는 다른 제자 일흔두 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²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³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⁴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⁵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⁶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⁷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⁸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⁹ 그곳 병자들을 고쳐 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¹⁰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길에 나가 말하여라. ¹¹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¹²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